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학년도
석사 학위 청구논문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심 리 학 과
유 고 은
2 0 1 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유 고 은

유 고 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방 희 정 _____

심사위원 이 영 애 _____

이 승 연 _____

방 희 정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논문 개요	viii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6
A. 양육행동	6
1. 양육행동의 개념	6
2. 양육행동과 심리적 적응	7
B. 애착	9
1. 애착의 개념	9
2. 애착과 심리적 적응	11
C. 거부 민감성	12
1. 거부 민감성의 개념	12
2. 거부 민감성과 심리적 적응	14
D. 자기개념 명확성	16
1.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20
2. 애착과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관계	21
3. 거부 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23
E. 양육행동, 애착, 거부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24
III. 연구 방법	27
A. 연구 대상	27
B. 연구 도구	28

C. 연구 절차	30
D. 자료 분석	30
IV. 연구 결과	31
A.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31
B.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33
C.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구조적 관계	34
1. 경로모형의 설정 및 적합도 분석	34
2. 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36
3. 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38
D.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	40
V. 결론 및 제언	41
A. 결과 요약 및 논의	41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42
2.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44
3.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45
4.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	49
B. 연구의 의의 및 제언	50
참고문헌	52
부록	62
영문 초록	72

표 목 차

<표 1> 측정변인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31
<표 2> 주요변인들의 상관	32
<표 3>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결과	33
<표 4>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35
<표 5>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모양의 모수 추정치	36
<표 6>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38
<표 7> Bootstrapping에 의한 매개 효과 검증 결과	39
<표 8> 남·여 집단의 기저모형 및 완전제약 모델의 적합도 지수	40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34
<그림 2>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조 모형	36

감사의 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71:5)”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저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글로 배우지 않고, 경험으로 배우게 해준 엄마, 아빠, 동생...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주시고, 제게 부족한 지식을 더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시고, 유머와 여유로 기쁨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를 믿어 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논문 쓰느라 힘든 상황들을 배려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논문이 나오기까지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을 다해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논문개요

자기 개념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이 자기 개념의 내용적이고 평가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던 반면 최근에는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기 개념이 명확하고 일관됨을 의미하는 자기 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은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 중의 하나로 삶에서 적응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자기 개념 명확성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한 의문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내적인 변인과 함께 환경적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보다 폭넓게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을 독립변인(independent variable)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한다는 모델을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하는 모든 변수들에서 성차가 비일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각 변수들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확인함에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모형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먼저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사이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돌봄은 애착 안정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과는 정적 관계, 거부 민감성과는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과보호는 애착 안정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

거부 민감성과는 정적 관계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거부 민감성과 자기 개념 명확성은 부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에 있어 성차를 검증한 결과 거부 민감성에서 성차가 발견되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거부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나머지 변수들에서는 남녀 간에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 중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경로를 가졌다.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모두는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성별에 따라 모형 및 경로계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연구 모형이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며 경로 계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의 인과 관계를 설정한 본 연구 모형이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및 거부 민감성이 어떠한 경로로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에서 하위 차원인 과보호는 자기 개념 명확성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지지만 또 다른 하위 차원인 돌봄은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돌봄과 과보호는 모두 애착 안정성

으로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며 애착 안정성은 다시 거부 민감성을 매개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모델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모의 양육행동이 비수용적이고 통제적이었을 수록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형성된 낮은 애착 안정성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게 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할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부 민감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접촉되기 어렵고, 외부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기 개념이 더 크게 혼란을 겪게 되는 바,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결국 명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환경에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적응적인 모습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개인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졌을 뿐 아니라 각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가치관과 신념이 혼재하는 사회에서 카멜레온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해 볼 때, 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숙고한다는 것은 진부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Rogers가 말한 진정한 자기(Real Self)를 찾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 개념(Self-concept)’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는데 중심적 척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기 개념이 대인관계, 주관적 안녕감, 학업 수행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자기 개념에 대한 내용적이고 평가적 측면인 자기 신념 및 자기 존중감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자기 존중감이 적응, 성취, 삶의 만족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 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은 자기 지식 및 정보들을 범주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기 개념의 인지적 요소들을 말하는데,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의 하나가 바로 자기 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며, 내적으로 안정

적이고 일관적인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자기 개념의 하위 요소인 자존감, 자기 신념, 자기 개념 복잡성 등과 관련이 있으나 이들과는 구별된 개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자기 개념 명확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자의식, 자존감, 자기개념복합성 등 개인 내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송보라, 이기학, 2009a; 송보라, 이기학, 2009b; Campbell, 1990)이 연구되어 있으며,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을 경우 분노를 억제하는 성향이 있고, 공격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낮아지는 등의 부정적 결과들(강일선, 2005; 길주현, 2008;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Nezlek & Plesko, 2001; Bigler & Neimeyer, 2001;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Bigler, Neimeyer, & Brown, 2001; Stopa, Brown, Luke, & Hirsch, 2010)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자기 개념 명확성이 우리 삶의 전반적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로,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에 대한 탐색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한편, 모의 양육행동은 자녀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들 가운데 가장 중심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반적 자기 개념과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변인으로 연구된 바 있다(McClun & Merrell, 1998; Parish & McCluskey, 1992). 자기 개념의 인지적이고 구조적 측면인 자기개념 명확성과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을 결부시켜 본 연구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할 수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백승진, 2008),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모가 나타낸 양육 행동 및 태도는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지 모의 양육 행동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드러낼 뿐,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선정하였다. 애착은 생의 초기 반복적으로 경험된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애착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들이 밝혀진 바 있다(Leigh, Anna Beth, & Dorothy, 2003). 이와 같이 어린 시절 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포함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는 애착이 안정적일 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균형 있고, 복합적이며, 일관성 있는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 애착이 전반적 자기개념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련성과 관련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Mikulincer, 1995; Wu, 2009). 본 연구에서는 애착 안정성이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관계를 다시 거부 민감성이라는 변인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거부 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 불안을 가지며 거부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으로 어린 시절 거부적인 부모와의 관계 및 이를 토대로 형성된 애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이다(이복동, 2001; Erozkán, 2009; Kennedy, 1990). 뿐만 아니라 거부 민감성이 높을 수록 타인에 대해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선행 연구(Ayduk, Gyurak, & Luerssen, 2009)가 존재하여 거부 민감성이 애착 안정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모두와 유의미하게 관련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변인인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 개념 명확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각각의 관련성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각 변인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산재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모의 양육행동이 자기 개념 명확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뿐 아니라 주요 변인들에서 비일관적으로 성차가 발견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에 있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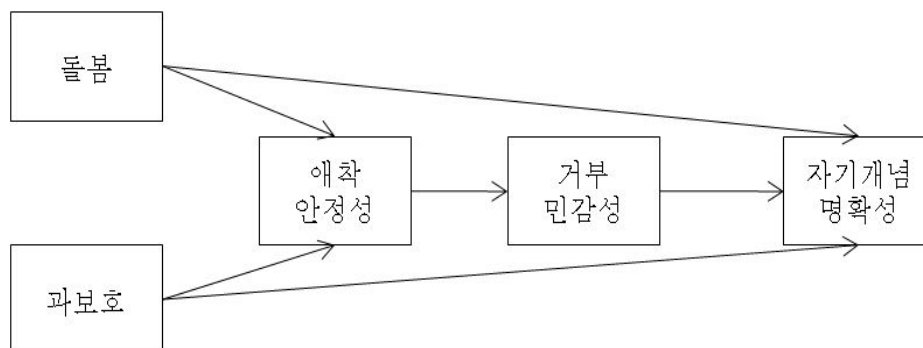
B.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에서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연구문제 4.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구조적 모형과 경로에서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A. 양육 행동

1. 양육행동의 개념

양육 행동이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들 중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며(Hart, Dewolf, Wozniak, & Burts, 1992),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모-자녀의 정서적인 관계가 이후의 발달에 까지도 영향을 미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haffer & Kipp, 2007).

부모 양육 행동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온바 있다. Schaefer(1959)는 초기 청소년기까지의 자녀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연구하여, 애정-적대 차원과 자율-통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91)는 애정과 통제라는 차원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애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권위적(Authoritative) 부모, 통제가 높지만 애정이 낮은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부모, 애정 차원이 높으나 통제차원이 낮은 허용적(Indulgent) 부모, 그리고 애정과 통제가 모두 낮은 무관심한(Neglectful) 부모가 그것이다. 또한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두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높은 돌봄과 낮은 과보호의 형태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성인 자녀가 16세까지의 부모 양육 방식을 회고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Parental Bonding Instrument(PBI)를 개발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PBI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태도에 대해 회상적으

로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기분이나 회상하는 상황 등에 따라 왜곡 또는 편향의 위험성이 제기되었으나, PBI를 사용한 연구들은 기분이나 기억 편향의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비교적 안정적 측정치를 얻을 수 있음이 드러났다(Gerlsma, Krammer, Sholing, & Emmelkamp, 1994).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다양한 분류들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양육 행동을 기본적으로 애정과 통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가 보고한 것 보다 자녀에게 더욱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Gonzales, Cauce, & Mason, 1996; Paulson, 1994). 따라서 부모 또는 외부 관찰자에 의해 보고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가 주관적으로 지각한 양육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자녀의 현상학적 지각과 주관적 경험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이 주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Rohner, 2004).

2. 양육행동과 심리적 적응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과 보호의 정도에 따라서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이 형성되며, 이는 이후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 즉, 부모와의 관계는 생의 초기에 시작되지만 개인의 전생애에 걸친 적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행동과 이후 심리적 적응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어, 따뜻하고 반응적 양육행동은 안정적 애착, 친사회성, 긍정적 또래 관계, 높은 자존감 및 도덕성 등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haffer & Kipp, 2007).

Rohner(2004)는 어린 시절 거부적인 양육자에게서 자랐거나 강한 거부 경

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정리하였는데 1) 적대성, 공격성, 수동 공격성, 2) 방어 또는 의존성, 3) 손상된 자존감, 4) 자기 부적절감, 5) 정서적 무반응, 6) 정서적 불안정성, 7) 부정적 세계관의 7가지가 그것이다. 또한 수용 경험이 결핍된 아동과 성인은 대인 관계가 예측 불가능하고, 무가치하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정신적 이미지를 구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정신 표상은 새로운 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타인을 정서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하거나 작은 신호에도 매우 각성되고 민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Allman, Joyce와 Crandall(1972)은 양육 방식과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을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승인에 의한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며, 승인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모의 애정이 부족할수록 초기, 후기 학령기 모두에서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성인기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 더 제한적이고, 통제적이며 온정이 부족한 모의 행동은 성인이 된 여성 자녀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반대로 아버지의 온정 부족과 강한 통제는 성인 남성 자녀의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즉동성 부모가 성인 자녀의 사회적 바람직성 경향을 더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거부와 부정적 평가 경험의 축적은 아동이 타인의 평가에 대해 걱정하게 하고,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를 발달시키게 한다. 더불어 평가나 승인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낮은 기대를 발달시켜 평가 상황에서 더욱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은 사회적 평가나 수용에 더욱 민감하게 하며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는 점은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지지되는 바이다.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돌봄 부족과 과보호가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여, 자신의 행동이 부모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벌을 받거나 혹은 기대를 만족시켰다 할지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자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발달시키기 쉬우며, 이것은 거부에 대한 예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상황에서 승인 추구 행동 보다는 불승인 회피 행동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B. 애착

1. 애착의 개념

애착이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로 (Bowlby, 1958), 애착 행동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Bowlby(1958)가 말한 애착 행동 체계란 영아가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특정한 개인에게 접촉을 유지하고, 근접성을 추구하려는 항상성을 말하는 것이다. 애착 행동은 영아가 더 이상 애착 대상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인식하거나 위협 또는 두려움을 느낄 때 시작되며, 이때 영아는 근접성을 회복하기 위해 울거나 애착 대상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근접성이 회복되었을 때 영아는 웃고, 안기고, 매달리는 등 근접성을 지속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고 점차 애착 행동이 비활성화 됨에 따라 영아는 환경을 탐색하고 음식을 먹는 등의 다른 행동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나 영아가 근접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양육자 또는 애착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건강한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의 기본이 되는 탐색활동이 줄어들게 된다(Berman & Sperling, 1994).

이러한 애착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 되기 위해서 아동은 애착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 대상 및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 (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켜야만 한다고 가정한다(Bowlby, 1988a). 내적 작동 모델은 애착과 관련된 반복적 경험의 산물로 자신과 애착 대상, 애

착 관계에 대한 축적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기대하고 해석하게 된다(Rothbard & Shaver, 1994). 애착 대상이 정서적으로 가용하며 반응적이고 지지적임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유능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 애착 대상으로부터 주로 거절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가치 없고 타인에게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는 실행 모델을 발달시키게 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이러한 내적 작동모델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 유연한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일차적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작동 모델의 기본적 구조와 강도를 제공하고, 이렇게 형성된 모델은 변화에 저항적이라는 것이 애착 이론의 기본적 주장이다(Rothbard & Shaver, 1994).

애착과 정신적 표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들은 영아의 행동 체계가 일관적 방식(활성화-반응-비활성화의 패턴)으로 발생하고, 규칙적으로 영아의 목표가 성취되는 긍정적 환경 속에서 발전 및 개선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다수의 아동들은 비일관적이고 그들의 목표 성취가 좌절되는 초기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Ainsworth(1989)는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라 불리는 실험관찰 환경에서 분리와 재결합 시에 나타나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애착 행동의 개인차를 조직화하였는데, 안정(Secure), 불안정-회피(Insecure-avoident), 불안정-저항(Insecure-resistant) 애착 유형이 그것이다. 이후 낯선 상황에서 재결합 시 얼어붙거나 상동 행동을 보이는 등 혼란스러운 행동양식을 보이는 아동을 새로이 불안정-비조직(insecure-disorganized) 유형으로 분류하였다(Main & Solomon, 1986).

애착과 관련된 종단적 연구들은 애착 유형이 학교, 가정, 사회적 상황에서의 아동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Sroufe, Egeland, & Kreutzer, 1990), 이를 통해 양육자에 대한 유대감과 초기 경험이 이후 발달에 장기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거부, 적대성, 비일관적 반응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특성 뿐 아니라 이

를 기반으로 형성된 부모 자녀 간 유대의 붕괴는 이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Rutter, 1985).

2. 애착과 심리적 적응

애착은 영아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지만 평생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원천이다. 성인 애착 이론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 성인기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애착 유형이 부모 이외의 친밀한 타인이나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가정은 생의 초기 형성된 애착이 일종의 특성이나 성향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직, 한성열, 1998).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Kenny(1987)의 연구결과 청년 후기인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부모를 안전기지(Secure base)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은 심리적 지지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ja(1992) 또한 부모와의 높은 애착 안정성이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래 애착이 높을 지라도 부모 애착이 낮을 경우 우울감을 높게 보고하여,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 및 청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와의 애착의 질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의 주된 설명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초기 애착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면, 이는 이후 대인관계 시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대인관계 상황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바탕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애착의 질은 특히 이후 대인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 그룹에 속하는 개인은 높은 사회적 능력과 더 나은 적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보고 하였으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애착 대상이 이용가능하고 지지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불안정 애착에 속하는 무시형(Dismissing) 그룹은 타인이 덜 지지라고 보고하였으며, 타인에 대해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되며 생의 초기 좌절된 애착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몰입형(Preoccupied)의 사람들 또한 사회적 능력이 낮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신경증적 증상을 더욱 많이 나타내었다. 신노라, 안창일(2004)의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 유형이 불안정 애착인 양가, 회피 유형보다 대인 불안이 더 낮을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효율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 모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대학생이 더 높은 대인관계 능력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C. 거부 민감성

1. 거부 민감성의 개념

안정적으로 타인에게 수용을 받고 거부를 피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관계가 불필요하거나 고통스럽더라도 사회적인 애착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사회적 유대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은 소속의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임을 지지하는 것이다(Baumeister & Leary, 1995). 이러한 수용 및 소속 욕구의 좌절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지각하는 방식과 이를 토대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욕구가 무시된 모든 사람이 부적응적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거부 민감성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거부 민감성이란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

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과정이다(Feldman & Downey, 1994). Levy, Ayduk와 Downey (2001)는 거부민감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토대로 어떻게 거부민감성이 개인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부 민감성은 개인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거절당하여 중요한 타인이 그들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달시킨 것이다. 그러나 애착 스타일이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된다는 애착 이론의 접근과 달리 거부 민감성은 전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주요한 타인에 의한 거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촉발된다는 특징이 있다. 거부에 대한 기대 불안은 거부신호에 과잉 각성되게 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이 ‘거부’ 행동이라고 입력되면, 상처받고 분노함과 동시에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에 대한 지각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타인의 모호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실제로 거부를 일으키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발생시킨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 불안은 앞서 거부 민감성 모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심각한 거절에 노출되어 수용의 욕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됨을 통해 발달한다(Downey, Mougious, Ayduk, London, & Shoda, 2004). 초기 아동기에 주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가 개인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가장 지속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며, 거부 민감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초기 부모와의 관계 경험으로, 거부 민감성은 부모가 아동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아동은 거부에 민감해진다는 Bowlby(1980)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으로 거부 경험을 한 개인은 타인에게 지지나 수용을 구해야 할 경우 자신이 거부 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거부를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이처럼 거부민감성의 발달이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애착의 질과 유형은 거부 민감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rozkán(2009)은 안정애착 유형이 거부 민감성이 낮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애착 유형이 두려움형이고 권위적인 양육을 받은 학생은 유의미하게 거부 민감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즉 어린 시절 부모에게 통제적이고 덜 애정적인 양육을 받아 불안정한 애착을 발달시킨 사람이 거부 민감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 또한 애착 유형에 따라 거부 민감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안/양가형 애착이 거부 민감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이복동, 2001). 다른 연구들에서 또한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에 비수용적일 경우 아동은 타인이 그들을 지지하고 수용해 줄지 불안해하여 불안정한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거부 민감성과 애착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Kennedy, 1990).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으로 볼 때, 수용의 욕구는 부모, 또래, 이성과 같은 근거리 관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은 원거리 관계를 포함하는 수많은 관계의 형태를 통해 충족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거부를 통해서도 거부 민감성은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가 좀 더 삶의 후반에 경험된 것이라면 거부에 대한 기대 불안의 범위와 강도 등 그 효과가 생의 초기에 거부를 경험한 경우 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생의 초기 경험이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데 있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거부에 대한 방어적 기대는 부모 자녀 관계와 같은 특정 유형에서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관계, 이성 관계와 같은 다른 유형의 대인관계에도 적용된다.

2. 거부 민감성과 심리적 적응

거부 민감성 모델에서 주된 가정은 거부 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거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거부에 대한 기대 불안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과거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거부를 경험하여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그들이 거부가 일어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부가 실제로 언제 일어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협으로 느끼게 된다(Levy, Ayduk, & Downey, 2001). 이러한 상황에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과잉 각성되고 거부에 대한 신호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환경을 매우 세밀히 탐색하게 되며, 거부에 방어할 준비를 하게 된다(Compas, 1987; Krohne & Fuchs, 1991). 따라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악의 없는 행동에서도 거부를 지각하도록 더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부를 민감하게 지각한 개인은 상처받고 분노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게 될 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을 폭발시키고 공격하거나 반대로 철수해버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거부 사인에 과잉 각성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대안적 설명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거부 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귀인 하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를 지각할 때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이와 같이 거부 민감성 모델은 거부 민감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거부민감성이 어떠한 경로로 대인관계 및 적응에 영향을 주며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모델을 토대로 거부 민감성이 어떠한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고 설명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과 이로 인한 부적응적 정서-행동 반응들이 거부 민감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Downey & Feldman(1996)은 높은 거부 민감성을 가진 여성들이 적대적이고 지지적이지 않으며, 거부 민감성이 높은 남성들은 질투가 심하고,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 민감성이 높은 남녀 모두는 그들이 맺는 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Berenson 등(2009)은 주의력 과제를 통해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 단어에 의해 주의 간섭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위협적 사회적 자극에 노출된 후 주의가 편향되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높은 거부 민감성을 가진 개인은 위협적 사회적 신호에 대해 주의가 분산되며 주의 회피를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의 회피 전략은 정서적 각성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조절하려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피 경향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Self) 및 정서와의 단절을 가능하게 하여 원만한 대인관계와 개인의 안녕이 훼손될 수 있다.

D. 자기 개념 명확성

자기 개념(Self-concept)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자기 개념을 단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으나, 점차 자기 개념이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Markus & Nurius, 1986). 인지적 도식으로 정의되는 자기 개념은 자기에 대한 삽화적이고 의미론적 기억, 가치, 특성을 포함하는 조직화된 지식 구조이며 자기와 관련된 정보처리를 통제한다(Campbell et al., 1996).

자기 개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내용과 구조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는 자기 신념,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다시 지식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나뉜다. 지식적 요소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역할, 가치, 목표 뿐 아니라 특성, 신체적 특징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Campbell et al., 1996). 평가적 요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으로 자기 믿음에 대한 긍정성을 포함하여 전반적 자기 평가를 의미한다. 반면, 구조적 측면에는 자기 구획화(Self-compartmentalization), 자기 개념 복잡성(Self-complexity) 등이 속하는데, 자기 지식 및 정보들을 범주화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기 영역, 즉 자기 개념의

인지적 조직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기 지식이 조직화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자기 개념에 대한 과거의 연구들은 대부분 전반적 자기 개념 또는 자기 개념의 내용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자존감과 같은 평가적 요소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으로 관심이 옮겨져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속하는 변인들에 대한 탐색과 함께 이러한 변인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기 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은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이 자기 개념의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고, 자신 있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적으로 얼마나 일관되고 안정성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Campbell et al., 1996). Campbell 등(1996)은 자기 개념 명확성 척도로 이를 측정된 결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비교적 안정적 특성임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자기 개념 명확성은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가졌고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일반화 및 활용이 가능한 개념인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김대익, 1998). 이를 토대로 자기 개념 명확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자기 개념 명확성이 개인의 삶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자기 개념 명확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 먼저는 자기 개념 명확성과 사회, 정서적 적응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이며, 나머지는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이다. 자기 개념 명확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 연구한 결과들에서는 자기 개념 명확성이 특별히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자기 명확성이 낮으면 외부의 사회적 상황과 단서들에 취약하고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특별히 부정적 단서가 지각될 때 부정적 정서가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이와 유사하게 Nezlek과 Plesko(2001)는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정보에 덜 몰입되고,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Ego)에 대한 위협을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낮은 자기 개념 명확성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특히 부정적 피드백에 더욱 민감하게 하는데, 따라서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고(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쉽게 위협을 느껴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Nezlek & Plesko, 2001). 자기에와 자기 개념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예측력을 탐색한 연구(강일선, 2005)에서는 자기에 수준에 상관없이 낮은 자기 개념 명확성이 분노를 억제하는 성향에 영향을 주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불안정한 개인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다루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함이 시사되었다. 또한 자기에 수준이 높고,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을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감이 낮고,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며, 타인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개념에 혼란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에 취약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더 나쁘게 인식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가능성 또한 더 높게 지각하는 인지 도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자기에 성향과 자기개념 명료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에서는 외현적 자기에 집단에 비해 내현적 자기에 집단이 자기 개념 명확성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집단이 자기개념 명료성까지 낮을 경우 더 우울하고 분노를 억제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외현적 자기에가 높은 집단 중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보다 공격적이고, 신체적 공격에 대한 자동적 사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Bigler, Neimeyer와 Brown(2001)은 자기 개념 명확성이 정서적 균형, 만족감, 일관성, 삶의 목적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Campbell 등(1996)은 성격 특성의 5요인 중 분노, 우울 등 불쾌한 정서를 쉽게 느끼는 경향과 관련된 요인인 신경성(Neuroticism)의 대부분의 측면과 강한 상관을 가짐을 파악하였다. 종합해 볼 때, 선행연구의 결

과들은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고, 균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여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기 개념 명확성은 개인의 삶의 적응 및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이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는 바, 자기 개념 명확성의 발달 및 형성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자기 개념 명확성 형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자기 개념 명확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자기 개념 명확성 형성에 설명력을 가진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주로 개인 내적 요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자기 개념 명확성을 제외한 자기 개념의 다른 차원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다수이다. 송보라, 이기학(2009a)은 자기 개념 복잡성이 인지적 유연성을 부분 매개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또 다른 연구(송보라, 이기학, 2009b)에서는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자기 개념 명확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남자의 경우 인지적 유연성이 높으면 사적 자의식이 높은 경우에도 자기 개념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Bigler, Neimeyer와 Brown(2001)은 자기 개념 분화(Self-concept differentiation)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 개념 명확성의 유지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 개념 명확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변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자기 개념 명확성의 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명확하고 일관된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을 함께 파악할 때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 개념 발달에 가장 중추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모의 양육 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확인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고자 한다.

1.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개인의 자기 개념 혹은 자신에 대한 가치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관계 경험에 기반을 둔다. Comb, Richards와 Richards(1976)는 자기 개념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의 초기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수용과 거부하는 자신의 적절성을 지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자기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성이 높다고 나타났는데, Ingram, Overbey와 Fortier(2000)는 모의 돌봄이 정서를 통제 한 후에도 부정적, 긍정적 자기진술(Self-statement)과 자기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예측함을 나타냈다. Mcclunm과 Merrell(1998)은 양육 행동이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와 자기개념 발달에 대한 중요한 변인임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 스타일에 따른 자기 지각과 통제 소재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을 받은 자녀는 높은 자기 지각을 나타내었고, 내적인 통제 소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내적 통제소재는 긍정적인 자기 개념과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온정과 제한이 균형적인 좋은 양육은 자녀가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 감각을 가지게 하고, 자신의 노력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느끼게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긍정적 양육 방식이 자기 통제감을 발달시킨다는 주장과 유사한 맥락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의 PBI를 통해 측정된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한 이시은(2009)의 연구가 그것이다. 연구 결과 어린 시절 부모가 돌봄 수준이 높았고, 과보호 수준이 낮았다고 지각한 그룹이 가장 높은 자기 효능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보호를 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서 삶의 문제

를 빼앗아 자신이 처리해주므로 자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기 개념 명확성은 전반적 자기 개념 및 자기에 대한 평가적 요소들과 관련성은 있으나 이들과는 구별된 독립적인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전반적 자기개념의 관련성을 확인한 다수의 연구들이 축적된데 반하여,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을 관련시켜 연구한 논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백승진(2009)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자 대학생의 낮은 자기명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 여 대학생 모두의 자기 개념 명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기 개념 명확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을 뿐 부정적 양육 행동이 어떠한 이유로 자기 개념 명확성을 낮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확인하여,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지 더 복합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애착과 자기개념 명확성과의 관계

애착은 애착 대상과의 반복적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로써,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Bowlby(1969)가 제안한 애착 이론은 자기(Self)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애착 스타일에 따라 자기에 대한 다른 관점을 발달시키게 된다. 선행 연구들은 애착 스타일이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지하며 불안

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애착이 자존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에 더하여, 애착 스타일이 자기 개념에 대한 지식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몇몇 연구들에서 애착 유형에 따라 자기 지각의 정확성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Kobak과 Sceery(1988)은 회피형(Dismissing)사람들에게서 사회적 능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보고와 또래 보고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애착유형이 불안(avoidant) 또는 양가형(Ambivalent)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과잉 지각하는 특성을 보였다. 유사한 맥락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 유형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양가 및 회피 애착에 비해 더 균형 있고, 복잡적이며, 일관성 있는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Mikulincer, 1995).

한편, Wu(2009)는 애착 유형에 따라 자기 개념 명확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불안과 회피 애착은 자기 개념 명확성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불안 애착이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밝혔다. 양육자의 긍정적이고 민감한 반응으로부터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며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발달시키게 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각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타인으로 부터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에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이고 안정적 환경에서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명확한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불안정 애착은 이러한 긍정적 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특성에 대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립하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거부 민감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거부 민감성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편향적이고 부정적 지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대인관계에서 의 부적응을 예측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처럼 거부 민감성은 타인에 대한 지각과 타인과의 부적응적 상호작용을 예측한다. 그렇다면 거부민감성이 자기(Self)에 대한 지각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선행 연구 결과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거부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낮은 자존감(Self-esteem) 및 자기 가치감(Self-worth)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Ayduk et al., 2000). 또한 높은 거부 민감성은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Ayduk, Gyurak & Luerksen, 2009),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이는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 및 생각에 접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관련될 수 있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관계에서의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억압하며,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여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기희생적인 관계 패턴을 발전시키기도 한다(Harper, Dickson & Welsh, 2006), 이처럼 거부 민감성은 타인의 반응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감정과 생각들에 접촉되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일관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Ayduk, Gyurak & Luerksen, 2009). 둘째로 대인과 관련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느낌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반대로 가치 있는 목표 영역에서의 실패는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을 취약하게 한다는 점에서 높은 거부민감성과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련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주된 목표가 거부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속에 대한 목표를 좌절시키

는 거부 경험은 특히나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혼란을 가지게 할 수 있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 셋째로,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이 높고 따라서 이러한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자기 개념의 명확한 확립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타인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에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은 이러한 피드백을 토대로 자기에 대한 개념을 더 명료화할 수 있고(Wu, 2008),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지라도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자기 개념이 훼손되거나 위협받지 않는다.

E. 양육행동, 애착, 거부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은 생의 초기 반복적으로 경험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아래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과 애착 유형 및 안정성 사이의 유의미한 관련성들이 밝혀진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인관계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Leigh, Anna Beth와 Dorothy(2003)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권위적(Authoritative)이라고 지각하는 것과 안정 애착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반면 부모의 양육을 무관심(Negligent)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불안정-회피 애착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또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애착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인생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고유의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성인기 초기 이후에도 계속 유지됨을 밝혔다(조미정, 성현란, 2009).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확립된 애착의 질은 인지, 정서, 사회성을 망라한 다양한 영역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대인관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에 비수용적일 경우 아동

은 타인이 그들을 지지하고 수용해 줄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정한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킨다. 때문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특히 타인의 거부를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부 민감성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Kennedy, 1990).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토대로 애착과 거부 민감성의 관련성을 탐색한 한 연구들은 실제로 불안정 애착이 거부민감성을 예측함을 확인하였다(이복동, 2001; Erozkán, 2009).

한편,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고(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거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바꾸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는 관계 양상을 보여 명확한 자기개념을 확립하기 어렵다(Ayduk, Gyurak, & Luerksen, 2009)는 점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또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의 주된 목표가 거부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받거나 거부 경험을 하여 수용 받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가 좌절될 경우,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더 큰 혼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Ayduk, Gyurak & Luerksen, 2009).

선행 연구를 통해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자기 개념 명확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백승진, 2009),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어떠한 이유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반복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애착을 양육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예상하였으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거부 민감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애착이 다시 거부민감성을 매개 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이 애착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자기개념명확성을 예측한다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변인인 양육행동, 애착, 거부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부 변인들에서 성차가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양육 행동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모의 양육 행동을 더 수용적이고 지지적으로 느낀다고 나타낸 연구가 존재하는 반면(문경주, 오경자, 2002;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지각된 양육 행동에 대해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도 있어(김무경, 오윤희, 오강성, 2005; 김은정, 2010) 성차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애착의 경우, 애착을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는데, 애착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안정성 측면에서 양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남녀 간 애착 안정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존재한다(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옥정, 1998).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에 남녀 차이를 보고한 연구도 있었는데, 여자 집단의 애착 안정성이 더 높음을 나타냈다(김성희, 2006). 다음으로 거부 민감성에서는 일관된 성차가 보고되고 있는데, 일관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yduk et al., 2000; Downey & Feldman, 1996; Erozkhan, 2009). 마지막으로 자기 개념 명확성에 있어서는 성차가 비일관적으로 확인된다. 몇몇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길주현; 2009; 백승진, 2009), 다른 연구들에서는 자기 개념 명확성에 있어 남녀 차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일선; 2005; 송보라, 이기학, 2009a; Campbell et al.,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별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양육행동이 애착과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자기개념 명확성을 예측할 것이라고 설정한 모델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발견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근교에 위치한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집단을 연구 대상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Harter와 Monsour(1992)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후반에 접어드는 연령인 17세 청소년에 이르러서야 자기에 대한 통합되고 일관된 견해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자기 개념이 일관되고 안정적가를 의미하는 개념인 자기 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에 초기 청년기 이후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총 49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47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일부 설문지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66부를 제외하고 총 409개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남자 18-28세, 여자 17-28세로, 평균 연령(표준편차)는 남자 22.57(2.66), 여자 21.11(2.06)세였다. 대상자들의 경제적 수준은 300-50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부모의 교육 수준은 대체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졸업'에 분포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나 부모 학력이나 가족 형태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전체 인구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B. 연구 도구

1. 모의 양육 행동

자녀가 지각한 모의 양육행동은 Parker, Tupling과 Brown(1979)이 개발하고 이후 Gamsa(1987)가 문항을 개정한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과거 16세 이전까지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의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낸 태도 및 행동에 대해 묻는 질문이 각각 25문항씩(돌봄 12문항, 과보호 13문항) 총 50문항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안 그랬다'에서 4점 '아주 그랬다'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된다. 돌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수준이 높은 것이며, 과보호 차원은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이고 침입적임을 의미한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이 어머니 돌봄이 .87, 과보호가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돌봄 .85, 과보호 .85였다.

2. 애착 안정성

대학생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 부 애착을 제외하고 모 애착을 측정하는 2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애착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값은 .87이었으며(Armsden &

Greenberg, 1987),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 거부 민감성 척도

본 연구에서 거부 민감성은 Downey와 Feldman(1996)이 제작하고, 이복동(2000)이 번안한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Scale: RSQ)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에서는 성인 초기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등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18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각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에 대해 염려되거나 불안한지(불안정도)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기대정도)를 평정한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의 6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거부 민감성 총점은 각 상황에 관하여 거부에 대한 기대점수와 불안 점수의 곱을 합하여 18로 나눈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민감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3이었으며(Downey & Feldman, 1996),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4. 자기 개념 명확성

자기 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개발한 자기 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 SCCS)를 사용하였다. 이는 처음에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였으나 요인 분석 후 12문항으로 단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단축된 최종 12문항을 김대익(1998)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개념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안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Campbell 등의 연구(1996)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C.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 한 달 간 서울, 경기 및 근교 소재의 5개 대학에서 남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피로효과를 고려하여, 설문의 순서를 달리한 A, B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설문은 인적사항,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척도,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척도, 거부민감성 척도,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작성에는 15-2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D.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AMO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적인 통계 부분을 살펴 보았고,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가설에 따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간의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평가를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4. 성별에 따라 연구 모형과 경로계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A.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앞서 연구의 기초 자료로써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최저치와 최고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또한 관찰 변인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산출하였다. 첨도 절대 값이 10보다 크고, 왜도 절대 값이 3보다 크면 정규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데(Kline, 2005),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표 1> 측정변인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409)

측정변인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양육 행동	돌봄	12-48	18-48	38.19	4.94	-.61	1.10
	과보호	13-52	13-49	26.18	6.60	.37	-.01
애착	25-125	64-114	94.97	10.22	-.46	-.09	
거부 민감성	1-36	7-16	11.61	1.87	-.04	-.50	
자기개념 명확성	12-72	27-53	39.84	5.47	-.05	-.57	

한편, 측정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에서 하위 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사이에 부적 관계 ($r=-.45, p<.01$)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은 애착 안정성($r=.58, p<.01$) 및 자기 개념 명확성($r=.21, p<.01$)과는 정적 관계 거부 민감성($r=-.23, p<.01$)과는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머지 하위 차원인 과보호는 애착 안정성($r=-.42, p<.01$) 및 자기개념 명확성($r=-.24, p<.01$)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 거부 민감성과($r=.18, p<.01$)는 정적 관계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거부 민감성과 자기 개념 명확성($r=-.20, p<.01$)은 부적의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상관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녀를 나누어 상관 분석을 실시한 뒤<표 2>, 이들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isher's Z검증을 행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있어 남녀차가 확인되지 않아, 남자와 여자 집단의 변인 간 상관관계 크기는 고려할 만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상관

	1	2	3	4	5
1. 돌봄		-.56**	.57**	-.21**	.28**
2. 과보호	-.34**		-.51**	.16*	-.32**
3. 애착	.60**	-.35**		-.24**	.21**
4. 거부 민감성	-.22**	.19**	-.30**		-.26**
5. 자기개념 명확성	.14*	-.14*	.21**	-.25**	

** $p<.01$, * $p<.05$ 주. 대각선 위: 남자/ 대각, 아래: 여자

B.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본 연구에 측정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비일관적으로 보고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별 남녀 간의 차이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성차를 분석한 결과 거부 민감성에서만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t=-3.06$, $p<.01$), 여자가 남자에 비해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변인들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결과 ($N=409$)

측정변인	남($N=201$)	여($N=208$)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양육 행동			
돌봄	38.66(4.79)	37.75(5.06)	1.87
과보호	25.73(7.01)	26.63(6.17)	-1.39
애착	94.85(9.37)	95.10(10.99)	-.248
거부민감성	11.32(1.84)	11.88(1.86)	-3.06**
자기개념 명확성	40.18(5.88)	39.51(5.05)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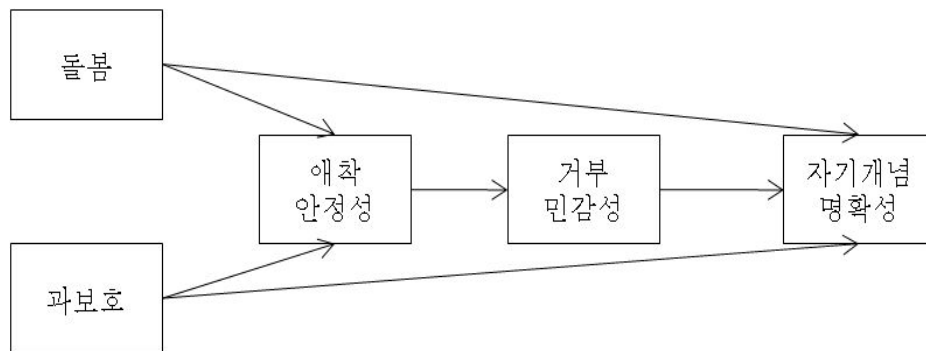
** $p<.01$

C.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구조적 관계

1. 경로모형의 설정 및 적합도 분석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과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간에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가정에 따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한 직접 경로를 가진다.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은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및 거부 민감성을 매개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한다<그림 1>.



<그림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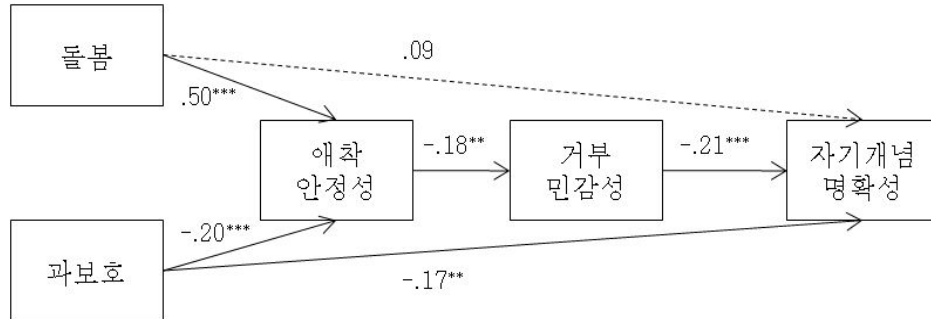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동시에 명확한 해석 기준이 확립된 적합도 지수이다. 이러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적합도 지수는 NNFI(TLI)와 RMSEA이며 이와 함께 CFI도 많이 쓰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χ^2 적합도 지수 이외에 TLI, CFI, RMSEA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TLI와 CFI는 .90이상 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연구모형	5.304	3	.15	.994	.979	.043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79, CFI=.994, RMSEA=.043으로 모두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차원에서 과보호는 자기 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설명하는 연구 모형이 지지되었다. 반면,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차원에서 돌봄은 자기 개념 명확성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모형과 각 계수의 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주. 오차항은 생략되었음, *** $p < .001$, ** $p < .01$,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

<그림 2>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조모형

2. 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수(Parameter)	추정치(Estimate)		임계치(C.R)
	비표준화추정치	표준화추정치	
돌봄 → 애착	11.242	.495	11.242***
과보호 → 애착	-4.493	-.198	-4.493***
돌봄 → 자기개념 명확성	.101	.091	1.716
과보호 → 자기개념 명확성	-.139	-.168	-3.208**
애착 → 거부 민감성	-.033	-.181	-3.015**
거부 민감성 → 자기개념 명확성	-.613	-.210	-4.367***

*** $p < .001$, ** $p < .01$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이 자기 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의 모든 경로는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인 돌봄이 애착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였으며($\beta=.495, p<.001$),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또 다른 하위차원인 과보호는 애착 안정성($\beta=-.198, p<.001$)과 자기개념 명확성($\beta=-.139, p<.01$)에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부적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애착이 거부 민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 또한 유의미하며($\beta=-.181, p<.01$), 거부 민감성이 자기 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210, p<.001$).

종합해 보면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인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에서 돌봄과 과보호는 모두 애착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애착 안정성은 거부 민감성을 설명하며, 거부 민감성은 다시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3. 모형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분석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이루어진 총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돌봄	애착	.495	-	.495
	거부 민감성	-	-.129	-.129
	자기개념 명확성	.091	.027	.118
과보호	애착	-.198	-	-.198
	거부 민감성	-	.051	.051
	자기개념 명확성	-.169	-.011	-.180
애착	거부민감성	-.260	-	-.260
	자기개념 명확성	-	.055	.055
거부민감성	자기개념명확성	-.210	-	-.210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거부 민감성을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사이에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는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매개효과는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Shrout & Bolger, 2002)가 보고되었는데, Bootstrapping 방법은 비정상성의 자료로도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Bootstrapping 방법은 빠르고 사용이 편리함과 동시에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인 복잡한 간접효

과를 검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추정할 필요 없이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한 후 신뢰구간을 형성하여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an, 2003). 따라서 매개 변인이 여러 개인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 방법이 매개 변인검증 방법의 하나로 알려진 Sobel Test에 비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7> Bootstrapping에 의한 매개 효과 검증 결과

독립 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된	표준화된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추정치	간접효과 추정치		하한	상한
돌봄	거부 민감성	-.049	-.129	.026	-.069	-.032
	자기개념 명확성	.030	.027	.009	.016	.060
과보호	거부 민감성	.015	.051	.014	.007	.023
	자기개념 명확성	-.009	-.011	.004	-.017	-.004
애착	자기개념 명확성	.029	.055	.016	.014	.055

Bootstrapping 방법에서는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간접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7>. 자세히 살펴보면, 돌봄이 거부 민감성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129, p<.05$)가 유의미하여 애착의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돌봄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027, p<.05$) 또한 유의미하여 돌봄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애착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보호는 거부 민감성에 유의미하게 간접효과($\beta=.051, p<.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이 과보호와 거부 민감성 사이를 매개한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으며, 과보호가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beta=-.011, p<.05$) 또한 유의미하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애착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유의미한 간접효과($\beta=.055, p<.05$)가 나타나 애착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D.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 비교

성별에 따라 연구 모형 및 특정 경로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를 가했다. 두 집단 경로계수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동일화 제약을 가할 경우 모형의 적합도는 떨어지게 된다(홍세희, 2001; 김하림, 2008에서 재인용). 만약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다르다면 동일화 제약으로 인해 떨어지는 적합도 그 이상으로 적합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완전제약 모형)과 기저모형(남·여 집단 모형의 χ^2 의 합과 자유도의 합으로 이루어진 모형)의 χ^2 차이를 검증해야 한다. χ^2 값이 $\alpha=.05$ 수준에서 유의하다면, 두 모형간의 경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남·여 집단의 경로 계수를 비교할 수 있다. 기저 모형과 완전 제약 모형의 적합도 및 그 차이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남·여 집단의 기저모형 및 완전제약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chi^2$	Δ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6.394	6	-	-	.996	.999	.013
완전제약 모형	14.486	12	8.092	6	.989	.993	.023

<표 8>를 통해 두 모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도 차이는 6이고 χ^2 차이 값은 8.092로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한 차이 값보다 크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저 모형에 비해 완전제약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크게 나빠지지 않았으며, 남·여 집단의 경로계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A.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근교 소재의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9명(남자 201명, 여자 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의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로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이러한 경로들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전체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요 변인인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의 상관을 구하였으며, 주요 변인에 있어 성차가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그 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검증하였는데, 연구모형에서는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두 하위 차원인 돌봄과 과보호가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 직접 경로를 가짐과 동시에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 경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의 경로 계수에 있어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변인들의 상관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인 돌봄과 과보호 사이에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라고 지각한 사람은 부모가 자신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덜 통제적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한 척도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한 이시은과 이재창(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애정적인 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덜 통제적임을 나타내는 자율적 양육 태도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결과(조미정, 성현란 2009)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밀착되어 있는 한국 문화 내에서는 서구 문화에 비해 과보호적인 양육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애정의 표현으로 생각할 소지가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자녀는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 행동을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 중 돌봄은 애착 안정성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과보호는 애착 안정성과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과 높은 애착 안정성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생의 초기에 애착 대상인 주 양육자와의 반복적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며 이는 내적 작동 모델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영향을 준다는 애착 이론의 가정(Rothbard & Sharver, 1994)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각된 양육 행동과 애착 유형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조미정, 성현란, 2009; Leigh, Anna Beth, & Dorothy, 2003).

또한 부모의 양육 행동,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살펴볼 때, 돌봄과는 부적인 상관, 과보호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도 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비수용적이고 통제적이

어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였을 수 록 타인의 거부에 대한 기대불안이 높고,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거부 민감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초기 부모와의 관계 경험으로, 부모가 거부적이고 비수용적인 경향이 있는 경우 아동은 거부에 민감해진다는(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 모델의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불안정 애착 유형과 거부 민감성 간의 정적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와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복동, 2001; Kennedy, 1990).

한편, 자기개념 명확성과 다른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자기 개념 명확성은 지각된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과는 정적 상관, 과보호와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즉, 자녀가 자신의 모에 대해 통제적이고 침입적임과 동시에, 애정과 지지의 정도는 낮다고 지각할 수 록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애착과 자기 개념 명확성 간의 관계도 정적으로 나타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어린 시절 모와의 긍정적 관계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모에 대한 안정적 애착이 높은 자기개념 명확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높은 돌봄 수준과 낮은 과보호 수준은 긍정적 자기개념 발달과 높은 자기 효능감 형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결과(이시은, 2009; Mcclunm & Merrell, 1998) 및 자기 개념 명확성과 거부적 양육 태도가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백승진(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 자기 개념 명확성이 더 낮다는 연구(Wu, 2009)와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종합해 볼 때 명확하고 일관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데 있어 모의 역할이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념명확성과 거부 민감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적인 관계가 확인됨을 살펴볼 수 있다. 거부에 민감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가지며(Ayduk et al., 2000),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있을 때 더 크게 자기 개념의 혼란을 경험한다는 연구(Ayduk, Gyurak, &

Luerssen, 2009)와 일치된다.

2. 주요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성차가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거부 민감성에서는 성차가 나타나 여자가 남자에 비해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선행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여자가 남자에 비해 거부 민감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Ayduk et al., 2000; Downey & Feldman, 1996; Erozkhan, 2009).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 강함으로 인해(Zahn-Waxler et al., 2005; Mash & Wolfe에서 재인용), 타인의 부정적 반응이나 관계에서의 갈등에 더 예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거부 민감성을 제외한 다른 변수들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에서 돌봄과 과보호 차원 모두에 있어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여자가 모의 양육 행동을 더 애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문경주, 오경자, 2002)와 불일치한다. 또한 온정/수용 영역에서 유의한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부/제재 차원에서 성차가 확인 되어 남아들이 여아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와는 일부만이 일치한다. 그러나 양육 행동 차원 모두에서 남녀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김은정(2010) 및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2005)의 연구와는 동일한 결과였다. 앞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모를 수용적으로 지각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은 모두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던 반면,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이나 성인기에 속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무경, 오윤희, 오강성, 2005; 김은정, 2010)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는 점을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애착에 있어서 또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일부 선행연구(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옥정, 1998; Wu, 2009)와는 일치되는 결과인 반면, 남녀 집단에 있어 애착 안정성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김성희, 2006)와는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에 있어서도 성차가 유의미하게 발견되지 않아, 일부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강일선, 2005; 송보라, 이기학, 2009; Ayduk, Gyurak & Luerssen, 2009; Campbell et al, 1996; Stopa, Brown, Luke, & Hirsch, 2010; Wu, 2009)를 지지한 반면, 남자가 자기개념 명확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길주현; 2009, 백승진, 2009)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개념 명확성에 있어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자기 개념 명확성에 있어 남자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으나 남녀 차가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여겨진다.

3.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이 자기 개념 명확성에 가지는 직접 효과를 논의한 뒤, 이 둘의 관계에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이 가지는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의 직접 효과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하위차원 중 돌봄은 자기 개념명확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과보호는 직접 경로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에 속하는 두 하위 차원이 자기 개념 명확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중 돌봄의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연구한 백승진(2008)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기 개념 명확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돌봄 차원은 점수가 낮을수록 모의 양육을 거부적이라 지각한 것으로, 거부적 양육행동을 포함한 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 모형을 통해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거부적 양육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 사이에 매개 변인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돌봄과 자기개념 명확성 사이를 애착과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애착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로 인해 돌봄의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볼 때 모의 양육을 수용적 혹은 거부적으로 지각하는지 여부는 자기 개념 명확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기 보다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함을 알 수 있다. 매개 변인들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이후 다시 언급하겠다.

한편, 지각된 모의 양육태도에서 또 다른 하위 차원인 과보호는 자기개념 명확성에 대해 애착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함과 동시에 직접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고 지각하는 자녀에게서 높은 자기개념과 자기 효능감이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이시은, 2009; Mcclunm & Merrell, 1998). 과보호를 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서 삶의 문제를 빼앗아 자신이 처리해주므로 자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을 갖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하여 결

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주장(이시은, 2009)과 부모와 극단적으로 가깝거나 부모의 지나친 통제 및 보호는 스스로 의사 결정할 기회를 박탈하여 자녀의 정체감 유실에 기여한다는 점(장휘숙, 2010)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모형에서 확인된 과보호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직접 관계는 통제적인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가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고한 자기상을 확립하는데 있어 제약이 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에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의 매개 효과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 개념 명확성 사이에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각된 양육 행동이 애착 안정성을 매개하여 거부민감성을 설명하는 간접경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사람이 수록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각된 양육 태도가 애착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다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며(조미정, 성현란, 2009; Leigh, Anna Beth, & Dorothy, 2003), 또한 어린 시절 모와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거부 민감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을(이복동, 2001; Erozkán, 2009; Kennedy, 1990) 지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이 애착 안정성을 매개하여 거부 민감성을 예측하는 간접 경로의 확인은,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용적이고 덜 통제적인 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예측된 애착 안정성은 다시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한다는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은 거부 민감성이 높으며(이복동, 2001; Erozkán, 2009; Kennedy, 1990),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불명

확한 자기 개념을 가진다는 연구(Ayduk, Gyurak, & Luerssen, 2009) 그리고 불안정 애착이 낮은 자기 개념명확성을 예측한다는(Wu, 2009) 이전 결과들을 종합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이 제안한 통계적 결과와 이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와 불안정적으로 형성된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의 형태로 성인기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적작동 모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중요한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기대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함을 고려할 때(Rothbard & Shaver, 1994), 불안정한 애착은 크게 자기에 대한 지각과 타인에 대한 지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안정 애착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편향된 지각을 하도록 하고, 거부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거부민감성을 예측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는 자기희생적인 관계 패턴을 발전시켜(Harper, Dickson, & Welsh, 2006), 정작 중요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덜 접촉되게 하며 이러한 결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립하기 어려워지게 된다(Ayduk, Gyurak, & Luerssen, 2009). 또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 관계에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고 사회적 불안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과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맞닥들이게 되는 부정적 사인들을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Berenson et al, 2009). 따라서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인의 피드백을 기존 자기 개념에 통합하여 더 명확하고 일관된 자기상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겠다.

4.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 애착 안정,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조적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경로 계수 비교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거부민감성 및 자기 개념 명확성의 관계에 대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남녀 집단 간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모형 및 경로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애착 및 거부 민감성을 매개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간접경로를 가지는 형태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 간 성차를 검증한 결과 거부 민감성에서만 남녀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기타 다른 변수들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부민감성이 성차가 없는 다른 여러 변수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녀 모두 어린 시절 모에게서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받아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경우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 불안이 높아지고 거부 불안이 높을 수록 자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하기 힘들어 진다는 설명이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B.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자기 개념에 대한 연구들은 내용적이고 평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자기 개념의 구조적 측면인 자기 개념 명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자기 개념 명확성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자기 개념 명확성이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발달적인 관점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의 형성을 설명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 내적인 요인 뿐 아니라 모의 양육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이를 예측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논의 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통합적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각된 양육 행동과 애착 안정성 모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의 양육행동 및 부에 대한 애착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부와 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환경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영향력보다 친구, 이성 등 기타 사회 환경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 변인을 추가한다면 자기 개념 명확성을 예측하는 요인들에 대해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지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안정성의 측면에서 양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애착 유형에 따라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이복동 2001; Erozkhan, 2009; Wu, 2009), 애착을 양적인 측면에서 다룬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다. 후속연구에서 애착과 자기 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가정을 애착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유형별로 다른 경로들이 탐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일선(2005).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길주현(2008).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 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직, 한성열(1997).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91-109.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2005).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599-614.
- 김성희 (2006).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 관계적 자아 및 애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은정 (2010).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우울증상과의 관계: 역기능적도식과 회피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07-425.
- 김하림 (2008). 초등학생의 신체증상보고와 사회적 결과의 관계: 어머니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71-490.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영애, 최영희, 박인전, 김향은 (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43-60.

- 백승진(200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 명확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보라, 이기학 (2009a). 사적자의식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인지적 유연성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95-205.
- 송보라, 이기학 (2009b).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적응 관계에서의 인지적 유연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73-88.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신경정신학회지, 31(5), 979-992.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9.
- 신지은, 방희정, 윤진영 (2009). 애착과 대인관계: 여대생 부모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47-363.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복동(2001).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 효능감과 또래 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500.
- 이시은, 이재창 (2008). 부모유대와 대인애착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83-101.
- 이준득, 서수균, 이훈진 (2007).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의 자기개념 명료성과 부정적 정서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463-477.
- 장휘숙 (2010). 전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조미정, 성현란 (2009). 양육태도, 애착 및 자기개념이 기혼여성의 회피적 성향

- 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222-223.
- 황수민, 방희정, 신지은 (2010). 애착과 대인관계: 남자 대학생의 부모 애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67-86.
- Allaman, J. D., Joyce, C. S., & Crandall, V. C. (1972) The Antecedents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Tendencies of Children and Young Adult. *Child Development*, 43(4), 1135-1160.
- Am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yduk, O., Gyurak, A. Luersse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s the Impact of Rejection on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1), 1467-1478.
- Ayduk, O., May, D., Downey, G.,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44.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 Berenson, K. R., Gyurak, A., Ayduk, O., Downey, G., Garner, M. J., Mogg, K., Bradley, B. P., & Pine, D. S.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64-1072.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Bigler, B., Neimeyer, G.,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 Bigler, B., Neimeyer, G.,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10.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L. M., Lavalle, L. F., & Lehman, D. R. (1996).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3.
- Comb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Psychological Science*, *15*(10), 668-673.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 gender, and parenting sty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7*(1), 1-14.
- Fan, X. (2003). Using commonly available software for bootstrapping in both substantive and measurement analys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24-50.

- Feldman, S.,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logy, 6*, 31-247.
- Gamsa, A. A. (1987). Note on the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291-294.
- Gerlsma, C., Krammer, J. J. A., Sholing, A., & Emmelkamp, P. M. G. (1994). The influence of mood on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159-172.
- Gonzales, N. A., Cauce, A. M., Mason, C. A. (1996). Interobserver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parental behavior and parent-adolescent conflict: African American mothers, daughters, and independent observers. *Child Development, 67*, 1483-498.
-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59-467.
- Hart, C. H., Dewolf, M., Wozniak, P., Burts, D. C. (1992). Maternal and Paternal Disciplinary Styles: Relations with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eer Status. *Child Development, 63*(4), 879-892.
- Harter, S., & Monsour, A. (1992). Developmental analysis of conflict caused by opposing attributes in the adolescent self-portrait.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51-260.
- Ingram, R. E., Overbey, T., & Fortier, M.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dysfunctional automatic thinking and parental bonding: specificity of maternal ca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401-412.

- Kennedy, J. H. (1999). Romantic attachment and ego identity, attributional style, and family of origin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 Journal*, *33*, 171-180.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17-29.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rohen, H. W., & Fuchs, J. (1991). Influence of coping dispositions and danger-related information on emotional and coping reactions of individuals anticipating an aversive event. In C. D. Spielberger, I. G. Sarason, J. Strelau, & J. M. T. Brebner (Eds.), *Stress and anxiety*. New York: Hemisphere.
- Leigh, K., Anna Beth, D. & Dorothy, M. (2003).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style and attachment to mother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2), 153-165.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 R. Leary (Eds.), *Interpersonal Reje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in, M., & Solomon, J. (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9), 954-969.
- Mash, E. J., & Wolfe, D. A. (2008). *Abnormal Child Psychology (4th ed.)*. Belmont, CA: Wadsworth/Tomson.
- Mcclun. L. A., Merrell. K. W. (1998).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and self concept among junior high age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4), 381-390.
- Mikulincer, M. (1995). Attachment style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203-1215.
- Nezlek, J. B., & Plesko, R. M. (2001). Day-to-Day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Clarity, Self-Esteem, Daily Events, and Moo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2). 201-211.
- Parish. T. S., McCluskey. J. J.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young adults' self-concepts and evaluations of parents. *Family Therapy*, *21*. 223-226.
- Parker, G., Tupling, H., and Brown, L.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aulson, S. E. (1994). Relations of parenting style and parental involvement with ninth-grade students' achie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50-267.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Rohner, R. P. (2004).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Syndrome": Universal Correlates of Perceived Rej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9(8), 830-840.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W. H. Berman, & M. B. Sperling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Press.
- Rutter, M. (1985). Family and school influences on cognitiv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683-704.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chaffer, D. R. & Kipp, K. (2007). *Developmental psychology*. Belmont, CA: Tomeson Wadsworth.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Sroufe, L. A., Egeland, B., & Kreutzer, T. (1990). The fate of early experience following developmental change: Longitudinal approaches to individual adaptation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63-1373.
- Stopa, L., Brown, M. A., Luke, M. A., & Hirsch, C. R. (2010). Constructing a self: The role of self-structure and self-certainty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1(1), 1-11.
- Wu, C.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 and

self-concept clarity: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1), 42-46.

부 록 목 차

부록 1. 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록 2.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척도

부록 3. 거부 민감성 척도

부록 4.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

부록 1. 모의 양육 양육행동 척도

- 다음은 여러분의 어머니(또는 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가 여러분께 보여주신 태도와 행동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다음의 내용이 ‘16세 이전’까지의 여러분의 어머니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No.	문 항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아주 그랬다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8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9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10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11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었다.				
13	나를 어린애 취급 하였다.				
14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15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6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17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주었다.				

18	나와 가끔 이야기 하였다.				
19	어머니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20	어머니는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 다고 여겼다.				
21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 주었다.				
23	나를 과잉보호 하였다.				
24	나를 칭찬해 주었다.				
25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부록 2.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 척도

- 다음은 여러분의 어머니(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어머니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v표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줍니다.					
2	우리 어머니는 부모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3	다른 분이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4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줍니다.					
5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6	어머니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보아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7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십니다.					
8	어머니와 함께 내 문제를 상의할 때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바보같이 생각된다.					
9	우리 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십니다.					
10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속상해 한다.					
12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어머니는 내 의견을 고려해 주십니다.					
13	우리 어머니는 내 판단을 신뢰하십니다.					
14	우리 어머니는 자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문제로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15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6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7	나는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낀다.					
18	나는 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9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20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2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22	나는 우리 어머니를 신뢰한다.					
23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25	어머니가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신 경우,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다.					

부록 3. 거부 민감성 척도

- 다음의 질문은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등과 관계되어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대인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황을 주의 깊게 읽은 후, 2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적당한 숫자에 v표하여 주십시오(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1	2	3	4	5	6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상황1.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한다.					
1) 노트를 빌려주지 않을 지에 대해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노트를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2.	친구에게 이사 와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탁한다.					
1) 이사 오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이사 오라는 부탁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3.	부모님에게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 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1)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시지 않을까봐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결정을 도와주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4.	잘 모르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1)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잘 모르는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5.	당신의 남자(여자)친구는 오늘 밤에 다른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남자(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남자(여자)친구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달라고 요구한다.					
1)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지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남자(여자)친구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6.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부탁한다.					
1)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용돈을 더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7.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수업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좀 더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1)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실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교수님이 설명을 더 해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8.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에,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다.					
1)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주저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9.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의한다.					
1) 그 사람이 그러자고 할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그 사람이 같이 커피를 마실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0	졸업하고 난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 했을 때, 부모님께 당분간 생활비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한다.					
1) 생활비 보조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1	방학 기간 동안, 친구에게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1) 친구가 여행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여행 제의를 받아들여리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2	남자(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난 후, 먼저 전화해서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1) 남자(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할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남자(여자)친구가 만나자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3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다.					
1)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물건을 빌려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4	부모님께 내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다.					
1)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거절할까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부모님이 참석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5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					
1)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친구가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6	남자(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물어본다.					
1)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할지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남자(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7	클럽에서 눈에 띄는 이성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청한다.					
1)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상황18	남자(여자)친구에게 부모님을 만나러 와 달라고 요청한다.					
1) 내 청을 거절할 것 같아 걱정되거나 불안하다.	1	2	3	4	5	6
2) 내 청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된다.	1	2	3	4	5	6

부록 4.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

■ 다음의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No.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불일치 할 때가 있다.					
2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변한다.					
3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4	나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다른 것 같다.					
5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6	내 성격의 모순적인 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다.					
7	때때로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8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매우 자주 바뀌는 것 같다.					
9	내 성격에 대한 나의 설명은 날마다 달라진다.					
10	내가 실제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11	나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2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elf-concept Clarity : Mediation Effect of Attachment Secur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Yu, Go Eu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While past studies on Self-concept were focused on content and evaluative aspects of Self-concept, rec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tructural aspect of Self-concept. Self-Concept Clarity, meaning a clear and consistent self-concept, is one of the structural aspects and it is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of playing adaptive role in life. As a result, questions arose on factors of predicting development of Self-Concept Clarity, and this thesis is focusing on such aspects.

Considering personal inner variable together with environmental variable, the purpose is to explain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Clarity much more widely;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which is verified as predicting Self-Concept Clarity from a precedent study, is set as Independent variable. This study suppose that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have direct effect on Self-Concept Clarity. At the same tim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elf-Concept Clarity is mediated by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and rejection sensitivity.

There were also inconsistent gender differences from all variables that this study investigates, therefore, acknowledging the gender differences shown in each variable an examination was attempted on whether gender difference occurs in the structural model this study established.

These are the results from this study.

Firstly, after analysing relations of major variables, between subordinate levels care and overprotection a negative relationship was shown in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lso, car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ttachment security and Self-Concept Clarity an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rejection sensitivity. Overprotection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attachment security and Self-Concept Clarity but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jection sensitivity. Lastly,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Secondly, after verifying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a gender difference was found in the area of rejection sensitivity: Female's rejection sensitivity was higher than that of male's. On the other hand, gender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maining variables.

Thirdly, after examining whether any structur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subordinate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verprotection, have a direct effect on Self-concept clarity. At the same tim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care and overprotection, and Self-concept clarity is mediated by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and rejection sensitivity. However, care, the subordinate level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was not significant as a direct path to predicting Self-Concept Clarity.

Lastly, after investigating whether the model this study established had gender differences on the model and Path Coefficient, the study model was shown to be suitable both to male and female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ath Coefficient. Therefore, the study model that set up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ttachment security,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was applied equally without gender differences.

From the study result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rough what paths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and rejection sensitivity predict Self-Concept Clarity. First, overprotection, one of the subordinate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s able to directly explain Self-Concept Clarity, but care, the other subordinate level, was found not to be meaningful in direct effect. Care and overprotection both have direct paths as attachment security, and attachment security again mediates rejection sensitivity and explains Self-Concept Clarity. This kind of model also applied equally to male and female.

The results shown above have the following meaning.

The more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s were unreceptive and controlling during childhood, the lower the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gets; low attachment security gives negative perception towards other people and forms a rejection sensitivity that results in being insecure about other people rejecting you and sensitively reacting towards rejection. Because a person with high rejection sensitivity puts excessive importance on other people's response, he or she relatively becomes difficult to connect with his or her own emotions and thoughts, and when getting a negative feedback from the outside, a bigger confusion on Self-concept will occur. After all, the result suggests the a person with high rejection sensitivity can have difficulties in forming clear Self-concept.